

## Moïra 에 나타난 Joseph 의 폭행성 (La violence de Joseph dans Moïra de Julien Green)

鄭 然 豊  
(불어교육과)

### 1.

作品 *Moïra*의 주인공 Joseph Day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와 현실의 괴리, 종교적 교훈에 대한 집착과 여성에 관한 강박관념, 원했던 행동과 실제의 행위의 엇갈림 속에서 악몽과도 같은 삶을 계속한다. 정상적 생활균형을 잃고 심한 심리적 갈등에 빠진 그는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며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폭력행사를 한다.

Joseph의 이러한 폭행성은 마침내 강간과 살인으로 끝을 맺는다. 그의 여성결벽증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의 하숙방에 침입한 *Moïra*가 그를 유혹하다 지쳐 나가려 하자 그는 마치 성도착자와도 같이 광폭하게 그녀를 강간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잠이 깨자 몸을 허락했던 *Moïra*를 모포로 씌워 살인하는 폭행성을 보여준다.

스스로 정당성과 순결성의 화신으로 자처하려던 Joseph는 염기적 살인자로 변신한다. 그러나 작품 *Moïra*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증스러운 위선자나 흉악범에 대한 분노를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순수성 추구로 말미암아 자폭적인 폭력행사를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한 순진한 학생의 비극에 대하여 더욱 큰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그의 폭력적 범죄행위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그와 같은 극한상황에 빠지면 누구나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원초적 인간으로 돌아가 폭행성을 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논문의 목표는 Joseph의 폭행성을 단순한 惡意의 形象化로만 보지 않고 이를 초월하며 그의 폭행성에는 원초적 인간의 울부짖음이 있다는 것을 돋보이게 함으로서 그의 폭행성이 작품 *Moïra*에 주는 문학적 기여를 강조하는 데 있다. 필자는 그의 폭행성을 유발시키는 복합적인 요인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과의 본의 아닌 불화와 마찰, 종교적 순수성 추구와 독선성, 여성에 대한 결벽증과 성적 충동의 마찰에 큰 비중을 두고 Joseph 특유의 폭행성이 표출하는 문학적 효과를 살펴 보았다.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이상하게도 Joseph는 계속 엉클어지는 친구관계, 심리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분위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우발적인 것과 같이 보이는 불쾌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그를 괴롭히는 데 있다. 그러나 그의 불행한 종말을 보면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보이지 않는 조물주가 짓곳은 장난을 하는 계획된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Joseph가 하숙집에서 처음 만난 학생 Simon은 틈만 있으면 그에게 접근하여 그의 신경을 거슬린다. 나약한 체구에 약간의 심리적 장애까지 있는 Simon은 자기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문제들,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개인적 일들에 비정상적인 호기심을 갖는다. 그는 Joseph를 끊임없이 찾아와 그가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하며 그의 행동을 살핀다. 그리고 Joseph가 몹시 귀찮아 하는 표정을 지으면 Simon은 곧 눈물이라도 뿔꺨듯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자기가 못마땅하냐고 묻고, Joseph가 차마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하지 못하면 다시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신경을 자극한다.

특히 Joseph는 Simon이 그의 호의를 얻으려고 책상 위에 목련꽃(Magnolia)과 “Moins blanche que toi...”<sup>(1)</sup>라는 쪽지를 몰래 갖다 놓은 것에 몹시 화가 났다. Simon은 Joseph가 누구보다도 깨끗하다는 표현을 하려는 의도에서 목련꽃도 그보다는 덜 희다는 쪽지를 써 놓았으나 Joseph는 Simon이 자기도 없을 때 자기 방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blanche라는 단어를 자신의 피부의 색, 육체와 연결시켜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처부라도 노출된 것 같이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Simon은 얼마 후 다시 Joseph를 찾아와 자기를 원망하느냐고 묻고, Joseph가 그렇지 않으니 제발 책이나 읽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자기는 입도 안 벌리고 움직이지도 않을 테니 그의 방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면 그의 초상화나 그리겠다고 말한다. Joseph는 다시 화가 북바쳐 Simon의 제의를 냉혹히 거절한다. 그러나 울상이 된 Simon이 모델이 되어줄 남자가 아무도 없으니 여자들 가운데서 모델을 구하겠다고 말하자 Joseph는 그가 여자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짓게라도 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마지못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허락한다.

Simon은 Joseph의 폭행성과 그로 인한 불행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듯이 보이고 Joseph도 그에 대한 불만을 폭력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Simon은 Green 작품 속에 자주 나타나는 인간에게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신비한 존재와 같이 Joseph의 심리적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그로 하여금 안정감과 자제력을 잃고 폭행성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한다.

(1) *Moïra*, éd. Plon, p. 67.

Joseph의 심리적 불안은 Simon의 계속적 접근 뿐만 아니라 Praileau의 도전적 모욕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화된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Joseph는 뒤에서 자신의 적갈색 머리를 야유하는 소리 “Messieurs, quelqu’un entre vous connaîtrait-il l’adresse des pompiers de cet endroit? M’est avis que ce serait une sage précaution de les avertir.”<sup>(2)</sup>를 듣고 돌아선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Praileau에게 그 말을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이 자기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맞으므로 자기가 한 것으로 하겠다고 쌀쌀히 대답하며 자기한테 무슨 불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자기의 주소까지 일러준다. Joseph는 그의 정면적인 멸시에 정신이 혼미하여지도록 울화가 치밀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서 억지로 분노를 참고 아무말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왔다. 그러나 Joseph는 Praileau의 교의적인 모욕과 위압적 태도를 도저히 기억에서 떨쳐 버리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Si je t’avais frappé ce matin, je t’aurais assommé. Je suis deux fois plus fort que toi.”<sup>(3)</sup>라고 외친다.

Praileau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Joseph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Joseph에게 그를 응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Joseph의 분노에 찬 생각에는 잔인한 폭행성이 엿보인다. 더구나 그는 “J’ai agi comme si j’avais peur, le Seigneur déteste les lâches.”<sup>(4)</sup>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Praileau를 폭력으로 응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를 태운다.

Joseph가 이와같이 울화에 차서 흥분하고 있을 때 Simon이 또 나타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것 저것 묻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Joseph를 보고 “Je sais ce qu’il y a. Ne dit pas non. Tu es amoureux!”<sup>(5)</sup>라고 말한다. Joseph는 쓸데없이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Simon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경이 곤두서서 그를 밖으로 밀어내며 가라고 소리친다.

그런데 Simon과 Praileau만이 Joseph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숙집에 있는 Allister가 그들에 합세를 한다. Joseph가 Praileau의 모욕 때문에 마음이 엉클어져 있을 때 Allister가 찾아왔으므로 Joseph는 공부를 하자는 구실로 그와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를 쫓으려 한다. 그러나 Allister는 Joseph의 공부나 하자는 말을 비꼬듯이 자기는 매일 저녁 술로 슬픔이나 달래려고 이 도시에 왔다고 말하며, Joseph의 성경을 보자 그것을 읽느냐고 묻고는 감탄한 듯이 손가락 하나를 천장으로 향하고 “Six jours tu travailleras, mais le jour de sabbat, tu le gardera pour le sanctifier, parce que c’est moi, l’Eternel ton Dieu qui te l’ai commandé.”<sup>(6)</sup>라는 성경구절을 성직자의 흉내를 내며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낭송한다. Allister의

(2) *ibid.*, p. 21.

(3) *ibid.*, p. 23.

(4) *ibid.*, p. 23.

(5) *ibid.*, p. 23.

(6) *ibid.*, p. 25.

의도적인 야유에 화가 난 Joseph는 “Monsieur Mac Allister, cette chambre où vous êtes a deux ouvertures: la porte et la fenêtre. Laquelle choisissez-vous?”<sup>(7)</sup> 하고 소리친 후 그를 두 손으로 들어 층계참에 내려놓자마자 문을 잠근다.

Joseph는 이유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모욕과 야유를 당한다. 그는 마치 세상을 조작하는 보이지 않는 악마가 파놓은 함정에 점점 빠져 들어가 미로를 헤매듯이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싶은 감정과 그들을 용서 하여야만 한다는 종교적 교훈 사이에서 격심한 갈등을 겪는다: “S’il ne pardonnait pas, à quoi servait de lire l’Evangile? Mais de temps en temps des bouffées de colère lui montaient à la tête. Reprendre les méchants, au besoin les frapper pour leur bien, lui apparaissait comme un devoir. On pouvait se mettre en colère et ne pas pécher.”<sup>(8)</sup> 그러나 위 문장에 나타나듯이 이성과 감정의 상충 속에서 번민하는 Joseph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배하는 것은 감정에 바탕을 둔, 감정을 옹호하는 이론이다. Joseph는 종교적 관용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그의 추론은 자기의 감정적 충동만을 옹호하고 합리화할 경우가 많다. 비록 그가 아직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폭행성은 관용과 응징의 상충 속에 더욱 팽배해지며 이성의 억제력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폭발할 가능성을 보인다.

Joseph는 Praileau를 다시 만났을 때 폭력적 충동을 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Praileau가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에 관하여 전혀 사과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거만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므로 더욱 분노가 치밀어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먼저 폭력을 가하고 그 폭행에서 오는 야릇한 기쁨까지 느낀다.<sup>(9)</sup> 자신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복수라도 할 수 있는 재치와 여유가 없는 Joseph는 결국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발산하며, 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폭력을 곧 후회하고 다시 더욱 심한 심리적 갈등 속에 빠진다. 이와같은 폭행과 후회의 악순환은 Allister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Joseph는 전에도 불화가 있었던 Allister가 다시 그의 방에 들어오자 나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Allister는 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하지 않느냐고 비꼬면서 저녁에 춤이나 추러가자고 제의하고는 침대 위에서 난잡한 몸짓을 한다. 그 모습에 울화가 치밀어 목까지 붉어진 Joseph는 별안간 아무 말 없이 혁대를 풀어 Allister의 등을 사정 없이 후려치며 “Tu voulais un sermon. En voilà un! Veux-tu que je continue, fils de Bérial?”<sup>(10)</sup> 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Allister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Joseph의 폭행에 떨고 나가는 것을 본 Joseph는 자신의 폭력행사를 또 다시 후회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7) *ibid.*, p. 25.

(8) *ibid.*, p. 30.

(9) *ibid.*, p. 33.

(10) *ibid.*, p. 101.

다짐한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으로 응징하고 싶었던 사람은 Allister라기 보다는 Praileau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Joseph는 Allister에 대한 폭행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자기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였으므로 도의적으로는 자신의 폭행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합리화적 사고 뒤에는 아직도 Praileau에 대해 폭력행사를 하고 싶은 감정이 응어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개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시나 멸시가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를 응징하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oseph는 이러한 일차적 본능의 욕구에서 초연한, 정신적으로 미화된 자신만을 자기에게서 확인하려 한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조롱과 무시에 대하여 오히려 더욱 선의를 갖고 대처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무시에 의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과시도 되지만 타인의 자신에 대한 무시를 무시하려는 복수심의 우회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Joseph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계속적 멸시에 대하여 항상 미화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가 극도의 불안과 고독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전혀 상반되는 사고와 행동을 엮어가며 하는 것은 미화된 자신과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신이 그에게 공존하면서 정반대의 요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균형을 잃고 참된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상반된 욕구가 공동으로 내재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때때로 엇갈리고 자기분열적 성향을 표출하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남달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극도로 미화된 자신과 이를 거부하는 자신이 배타적이어서 서로가 공존을 절대로 거부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의 Joseph 속에서 미화된 이상적 Joseph성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Joseph성은 더욱 더 세차게 그를 거부하고,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Joseph성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미화된 Joseph성도 더욱 더 그를 부정하려 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율배반적인 자기분열의 악순환 속에 헤매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의지가 선택하고 싶은 미화된 Joseph성을 잃은 상태에서 행동한다.

Joseph가 Praileau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Allister를 난폭하게 구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반된 자기 사이에 격심한 대립을 가지며 지나친 자기분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균형과 의지를 잃고 감정적 Joseph, 즉 원초적 Joseph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폭행에서 느끼는 야릇한 희열은 의식이나 의지의 굴레를 벗어난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자기실현, 원초적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희열이라 볼 수 있다.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을 무조건 응징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하나의 개체인 단세포 동물로부터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같을 것이므로 Joseph의 폭행과 그가 거기에서 맛보는 희열은 결코 그를 비하하지만은 않는다. 그는 이미 참을 수 없는 무시와 야유의 심리적 폭

행을 부단히 당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미화된 자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존재 유지조차도 위협을 받을 때 그 존재를 구하기 위하여 원초적인 자신이 자기 방어적인 행위로서 폭행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oseph의 폭행에는 자기방어를 초월하여 자기를 무시한 자들을 응징 내지 말살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Joseph가 Allister를 구타할 경우 자기방어 이상의 응징적 난폭성이 나타나며, 그가 Praileau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강인함에 미친듯한 기쁨을 느낀다. Praileau가 그에게 반격을 가하고 한 말 “Tu a voulu me tuer tout à l’heure. Tu n’as pas osé; cependant il y a en toi un assassin.”<sup>(11)</sup>은 몸과 몸이 맞부쳤던 사람이 육감적으로 느꼈던 비밀의 폭로다. 실제로 Joseph에게서는 Moira를 살해하기 이전부터 자기방어를 넘어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볼 수 있다. 그는 Praileau와 싸울 때 “Si je voulais, je pouvais t’ouvrir la tête aussi facilement qu’on casse un œuf.”<sup>(12)</sup>라고 소리친다. 이러한 잔인한 표현은 그가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지만 이는 그의 온몸의 순간적 부르짖음이며, 자기방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말살함으로써 自己獨存을 확립하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Joseph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주위에서 만난 학생들과 불화를 일으키거나 폭력적 충돌을 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Joseph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 데서 시작하였으므로 젊은 혈기에서 나온 그의 일시적인 폭행을 너무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의 폭행은 괴로움을 더는 버틸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였으며, 더구나 그는 그 지나침을 몹시 후회한다. 하지만 일면 Joseph는 자기의 폭력행사를 종교적인 이유를 빙자하여 합리화하려 한다. 그는 자기만 종교적 순수성을 가졌다고 믿으며, 스스로 자신이 신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이 아닐가 하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자기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려 한다.

Joseph가 하숙집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날 그녀를 보고 “celle-ci était peinte comme une Jézabel”<sup>(13)</sup>이라는 상상을 하며 “Peut-être s’est-elle trouvée sur mon chemin pour que je la sauve.”<sup>(12)</sup>라 생각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Simon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les êtres qui se mêlaient à sa vie lui étaient tous envoyés par Dieu.”<sup>(15)</sup>라고 자기와 신을 밀착시키

(11) *ibid.*, p. 36.

(12) *ibid.*, p. 34.

(13) *ibid.*, p. 12.

(14) *ibid.*, p. 12.

(15) *ibid.*, p. 15.

면서 종교적 관용을 갖고 Simon을 대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 독선과 선민의식은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괴로움을 받음에 따라 점점 경직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려는 불같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가난한 가정, 붉은 머리, 부족한 지식 등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더욱 굳어져 가는 그의 종교적 독선과 폭력성은 그가 유일하게 속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David와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Joseph와 함께 그리스어 강의를 듣는 David가 성경을 그리스어로 읽음으로써 예수의 사상에 知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자 Joseph는 “Je veux me tenir près de lui(christ), comprend-tu? comme on se tient près d'une personne vivante. Et je veux le voir.”<sup>(16)</sup> 라고 대답한다. Joseph의 이 말은 자기가 David에게 마치 어린이 취급을 당하듯이 그리스어 지도를 받고 생긴 열등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온 대답이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흔히 광신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망상과 정열,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자기 기만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다. 만일 Joseph가 이러한 욕망을 절대로 채울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타인에게 간파될 위험성이 나타날 경우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하면서라도 끝까지 자기를 기만하고 옹호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에게 자폭적 폭력을 가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Joseph는 스스로 “Moi, j'aime la religion à l'état sauvage.”<sup>(17)</sup> 라고 선언하며 자신이 기성 성직자와 같은 세련된 언행과 여유를 보이는 David보다 더 순수하고, 더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려 한다. 그리고 그가 “il faut gagner les âmes par la douceur, par la patience, et d'une certaine façon les séduire.”<sup>(18)</sup> 라는 말을 하자 Joseph는 몹시 분개하여 “Les séduire!” 라고 소리치며 자기는 그와 반대로 채찍으로 타인의 영혼을 획득하겠다고 말한다: “—Avec un fouet, comme Jésus dans le temple.”<sup>(19)</sup>

Joseph가 이와같이 점점 광신자적 격렬성을 띠는 것은 David가 그에게 여러가지로 심리적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이에 반항하기 위하여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도전을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Joseph에게 주는 야유와 무시로 말미암아 그의 종교를 빙자한 폭력성은 더욱 강경해진다. 그가 혁대를 풀어 쥐고 Allister를 난폭하게 구타하고 난 후 “J'ai fait ça pour le bien de Mac Allister.” “Ce n'est pas lui que je voulais battre. David. Ah! oui, David.” “Je lui ai pardonné à celui-là. Je ne pense plus à lui.” “Son nom est Praileau.”<sup>(20)</sup> 라고 독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폭행성의 근원이 단지 종교에 대한 모독을 응징하려는 데 있다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이든 자기를 무시하거나 위압하

(16) *ibid.*, p. 64.

(17) *ibid.*, p. 77.

(18) *ibid.*, p. 97.

(19) *ibid.*, p. 97.

(20) *ibid.*, pp. 102-3.

는 것에 대한 부정에 있다. 왜냐하면 Joseph가 Allister, Praileau, David로부터 받은 무시, 야유, 위압감은 자기 그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Joseph는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자기의 폭행의 대상으로 삼으며, 거기에 종교적인 이유를 붙이기 때문이다. 그는 Praileau와 폭력적 충동을 하기 전에도 “J’ai agi comme si j’avais peur, et le Seigneur déteste les lâches.”<sup>(21)</sup>라고 폭력을 종교와 결부시켜 합리화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신을 믿고 진심으로 신을 위하는 자의 의무와 같이 여기려 한다: “Reprendre les méchants, au besoin les frapper pour leur bien, lui apparaissait comme un devoir.”<sup>(22)</sup> 학생들이 Joseph를 “l’ange exterminateur”<sup>(23)</sup>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지나친 폭력적 성향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Joseph의 종교를 병자한 폭력 의존은 자기방어의 차원을 넘어 자기확장으로 향한다. 그의 폭행성에 나타나는 “지나침”은 바로 자기확장,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종교와 결부시켜 발산하는 데 있다.

Joseph가 폭행성을 띠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유일신, 개신교의 집안에서 형성된 독선적이고 배타적 경향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Green 자신이 책머리에서 “Il va sans dire que les protestants que j’ai mis en scène n’expriment en aucune façon mon opinion du protestantisme.”<sup>(24)</sup>라고 언급하였듯이 Joseph가 일반적 개신교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자기 교파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절대 독선적 사고방식은 그로 하여금 폭력에 의존하지 않게 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Joseph는 누구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가 개신교의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자기와 David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믿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할 생각을 한다. 그가 처음 만난 하숙집 아주머니 Mrs Dare에 대하여도 그녀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타락한 여자로 인정하고 “Je l’aiderai, oui, je l’aiderai à se sauver.”<sup>(25)</sup>라고 생각한다.

Joseph와 같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 확신을 갖고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교로 구원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은 종교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든 이러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양심이나 사명과 결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이든 그와는 별개 문제이든 남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을 자기의 종교로 구원하여야만 한다고 믿고 그를 사명으로 여기려는 자의 의식은 이미 광선적 독선으로 물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

(21) *ibid.*, p. 23.

(22) *ibid.*, p. 30.

(23) l’ange qui frappe de mort tous les premiers-nés d’Egypte avant le départ des Israélites pour la terre promise.

(24) *Moïra*, éd. plon, p. 67.

(25) *ibid.*, p. 16.



한 독선성에는 자기확장에 의한 타인지배라는 생물의 원초적 욕망이 깔려 있다. Joseph의 종교적 구원에 대한 집념에도 종교적 독선과 자기의 독선, 종교적 확장욕과 자기의 확장욕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폭력행위를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려는 광신성이 있다. Joseph의 폭행성은 하나의 신, 하나의 진리만을 믿으려는 개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화된다.

## 4.

하지만 그의 폭행성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 폭행은 異性에 대한 비정상성에서 온다. 모든 생명체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본능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Joseph는 여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곧 육체적 욕망과 죄악에 결부시킨다. 그는 정신적 사랑이나 정상적 결혼까지도 모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악의 소산으로 간주하려 한다. 사춘기에 들어선 그가 육체적 욕구인 異性에 대한 강력한 이끌림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의 지나친 여성 결벽증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자신의 본능적 이끌림을 스스로 부인하려는 몸부림과도 같다. 그의 행동과 사고 속에는 자신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무조건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의 온몸의 욕구는 이를 거부한다. Joseph의 여성에 대한 폭행성은 바로 그가 여성을 의식적으로 기피함으로써 육체적 욕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데서 짝이 트며, 이러한 갈등이 커질 수록 그의 폭행성은 더욱 그의 몸 속에서 팽배해짐을 볼 수 있다.

그가 Mrs Dare를 만난 후 그녀를 염두에 둔 그의 생각 “Un garçon honnête ne parlait pas à une femme fardée,...”<sup>(26)</sup>에는 Mrs Dare를 상종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결심이 엿보이나, 곧 “Peut-être s'est-elle trouvée sur mon chemin pour que je la sauve.”<sup>(27)</sup>라고 다시 생각을 고치고 그녀를 접근하여 종교적으로 그녀를 구원하려 한다. 그러나 Joseph가 생각하는 Mrs Dare의 구원이 순수한 종교적 이유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Joseph는 그녀를 단순히 하숙집 아주머니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여성으로 느끼는 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녀의 화장과 흡연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Joseph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그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접근이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구원으로 그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군림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Et pris d'une ferveur subite, il se vit arrachant à cette femme des larmes de honte, de promesses, un vrai repentir, peut-être une confession publique de ses fautes, comme cela se faisait jadis. Quelle victoire!”<sup>(28)</sup> 이와같은 그의 상상에는 Mrs Dare에 대한 종교적 구원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sadismef의

(26) *ibid.*, p. 12.(27) *ibid.*, p. 12.(28) *ibid.*, p. 16.

폭행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는 무슨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Mrs Dare가 단지 화장과 흡연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그의 앞에서 치욕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여기에는 그가 Mrs Dare를 욕보이려는 본능적 폭행성이 숨겨져 있다.

Joseph의 여성에 대한 폭행성에는 지나치게 억눌린 성욕을 발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발작성이 있다. 그는 스스로 죄악과 같이 생각하는 육체적 본능을 초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자신에게서 확인하고 남에게도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육체적 욕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자아분열을 일으키며, 지나친 자아분열은 이성을 잃은 폭행으로 발산된다. 이러한 것은 그와 Killigrew 사이의 대화<sup>(29)</sup>에서 뿐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엘”에 나오는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로미오가 몽상 속에서 자기 애인의 나체를 상기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 책을 찢어 마루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그의 광폭스러운 행위 속에도 잘 나타난다. Joseph가 “로미오와 줄리엘”을 찢을 때 그는 이 책에 나타나는 사랑이 동물적 본능과 결부된 죄악과 같이 생각하고 이를 응징하고 싶거나 또는 자신의 순수성을 Killigrew에게 과시하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책을 찢는 광폭성을 띤 행동 자체는 어떠한 구체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의 억압되었던 성욕이 자극을 받아 일어난 자아분열의 우회적 반응이다.

Joseph의 이러한 신경질적 폭행성은 그 자신이 성본능을 초월하는 것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고귀한 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억지로 추구하는 데 기인한다. Freud가 언급하듯이 성적충동을 어떤 고상한 목표를 위하여 억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을 신경질적으로 만들기 쉽다.<sup>(31)</sup> Joseph도 “로미오와 줄리엘”을 읽으면서 억제되었던 성본능이 자극되어 의식적으로 이를 억제하여 왔던 자신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서 격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며,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폭력성을 띤 행동을 한다. 여기에서 Joseph가 “로미오와 줄리엘”을 찢어 내던지는 행위는 외면적으로 그 책에 나타난 사랑이 성본능과 관계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본능 자극에 의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성본능을 초월하여 종교적, 도덕적 순수성과 고상함을 지키려던 것이 자신 속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하는 데서 오는 자기방어적 반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방어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본능은 Joseph 속에서 계속 팽배한다.

(29) *ibid.*, pp. 88-9.

(31) “Il est permis de dire que la tâche de maîtriser une motion aussi puissante que celle de la pulsion sexuelle autrement qu'en la satisfaisant peut réclamer toutes les forces d'un être humain. La maîtrise par la sublimation, par la dérivation des forces pulsionnelles sexuelles de buts sexuels sur des buts culturels plus élevés, seule une minorité y parvient et encore de façon intermittente et beaucoup plus difficilement dans la période d'ardeur juvénile. La plupart des autres deviennent névrosés ou subissent quelque préjudice.” (Freud, *La vie sexuelle*, éd. PUF., pp. 37-38).

Joseph와 David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Joseph는 학생들이 여자를 관계하는데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이 모두 그가 증오하는 성본능에 굴복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Joseph는 성본능이 자기와 David로서는 굴복할 수 없는 악이라고 확인한다:

David ne répondit pas tout de suite, mais considéra Joseph d'un air perplexe. "Il ne faut pas juger les hommes, dit-il enfin. Christ a dit de ne pas juger. A notre âge, l'instinct est presque irrésistible, l'instinct...sexuel. —Je hais l'instinct sexuel," fit Joseph d'une voix sourde.

Il se tenait debout, près de la table, serrant les poings, le haut du visage éclairé par la lampe. Quelque chose déferla sur ses traits comme une vague. Avec une violence continue, il reprit: "Tu as entendu ce que je viens de dire? Je hais l'instinct sexuel. Est-ce que nous y cédon, nous? Cette force aveugle, c'est le mal.

—Pas toujours.

—Si. toujours. Nous sommes conçus dans une crise de démence."<sup>(32)</sup>

Joseph는 두 주먹을 쥐고 목소리까지 변하며 성본능을 증오한다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성본능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이 성본능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안정성을 잃고 위기에 처해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폭행성을 가진 행위로 폭발할 수 있는 신경증이 억제할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Joseph는 David의 정상적 약혼과 결혼까지도 위협하고 관능적인 추잡한 행위와 결부시키면서<sup>(33)</sup> 신은 간음자들은 저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David가 분노를 참고 Joseph에게 그가 너무 간음만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간음을 상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자 그는 간음을 상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다.<sup>(34)</sup> 이는 곧 그가 간음을 증오한다고 말하지만 간음에 대한 도피심과 집착이 그의 속에 공존하며 상충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간음을 증오하려 하지만 본능적으로 간음을 원하고 있다. Joseph의 운명을 결정 짓는 폭행성은 바로 그가 Moïra를 만난 후에 성행위에 대한 욕망과 거부가 극도로 상충하면서 스스로의 자제력을 잃고 본능적 욕구와 의식적 욕구에 각각 엮기적으로 가담하는 데서 발생한다.

Joseph의 지나친 여성 기피행위는 그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화제가 되고 짓곳은 학생들 몫이 그의 여성 결벽증을 시험하기 위한 장난으로 Moïra를 Joseph에게 보낸다. Joseph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무심히 쳐다보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 보니 Moïra가 와 있었다. 이미 Killigrew로부터 학생들과 Moïra가 그를 괴롭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32) *Moïra*, éd. Plon, pp.111-112.

(33) *ibid.*, pp.164-165.

(34) *ibid.*, p.166.

고 있던 Joseph였지만 Moira를 보자 정신이 몽롱하여 한동안 아무말 못하다가 그녀에게 이상하게 변성된 낮은 목소리로 “나가라”고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Moira는 못나가겠다고 말하며 자기를 쫓아내려면 자기의 젖가슴 속에 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Joseph가 Moira를 그냥 있도록 내버려두자 권태로와진 그녀는 마침내 갈 생각으로 열쇠를 젖가슴에서 꺼내려 했으나 열쇠가 옷 밑으로 흘러내려 갔다. 당황한 Moira는 Joseph에게 돌아서라고 말하고 열쇠를 몸속에서 찾다가 마루바닥에 떨어트렸다. Joseph를 놀려주고 싶었던 그녀는 그에게 열쇠를 주어 문을 열라고 하고, 그가 몸을 숙여 열쇠를 주으려 하자 그의 머리를 만지며 “야성적이야”라고 말한다. 그 순간 Joseph는 벌떡 일어나며 마치 악의 손길이라도 와서 닿은 듯이 왜 자기를 만지느냐고 소리친다. 당황한 Moira는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자기 정신을 잃고 숨을 헐떡이는 그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가 갔다. 처음에 Moira는 Joseph에게 반항했지만 곧 몸을 허락하였으며, 그 후 Joseph는 바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35)

Moira와 한 방에 있는 동안 Joseph는 그녀의 유혹에 허점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순수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힘에 겨운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은품에서 강렬하게 팽배하는 성적 본능이 그의 의식적 노력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의 본능적 욕구는 지나치게 억압되었기 때문에 더욱 난폭성을 띠며 폭발한다. Joseph가 Moira를 강간할 때 나타나는 폭행성은 종교적 이유로 부당히 억눌렸던 성본능의 보상적 격렬성이며 인간의 억압되었던 원초적 본성의 자기실현적 광폭성이라 할 수 있다.

혼수상태 빠졌던 Joseph는 잠이 깨어 Moira의 살갓에 손을 대다 별안간 일어선다. 그리고 Killigrew가 Moira에 대하여 한 말 lupa(louve)를 상기하자 그녀를 깨운다. 그러나 그녀는 잠에 취한듯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춥다고만 말한다. 순간 Joseph는 정신이 나간듯이 “추우냐”는 말만 계속하며 모포로 그녀를 씌워 질식시킨다. 그녀가 이미 사망하여 반항하지 않자 Joseph는 모포를 들추고 한동안 아무말 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의 시체에 옷을 입히고, 얼굴 위에 흐트러진 머리칼을 매만지며, 양말과 신발을 신긴 후 그녀의 시체 옆에서 다시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36)

Joseph의 이러한 열기적 폭행에는 변태적이라기 보다는 병적인 면이 더 엿보인다. 하지만 그의 Moira에 대한 두 차례의 폭행인 강간과 살인은 각각 인간의 근본적 욕구인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너무나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충족을 위하여 발생하는 補償的 錯亂(délire de compensation)에서 나온 행위다. Moira 강간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녀에 대한 증오심의 폭발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촉각적 자극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35) *ibid.*, pp. 204-218.

(36) *ibid.*, pp. 218-220.

주어 그의 이성적 자제력을 잃게 함으로서 그의 온몸이 억눌렸던 원초적 욕구에 대한 보상에만 격렬하게 집착하는 데 있다. 반면 Moira 살해는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순수성의 상실을 자신의 과멸로 직감하고 자신을 과멸하게 한 악의 근원인 Moira를 살해함으로서 자신의 순결성을 되찾으려는 착란적 행위다. 이러한 이중적 폭행은 그의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착란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별성을 띠고 각자의 욕구에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데 있다.

## 5.

Green은 Moira의 책머리에 “La pureté ne se trouve qu'en Paradis et en Enfer.”라는 Saint-François de Sale의 격언을 상기한다. 스스로를 과멸로 이끄는 Joseph의 폭행성은 인간 사회에서 완벽한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폭발한다.

Joseph는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의 교리를 따라 생활하고 서로 화합하는 종교적 이상향을 열망했다. 그의 이러한 열망은 현대도시의 생활감각에 너무나 동떨어진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부감, 열등감, 저항감이 뒤섞이면서 더욱 강렬해진다. 그는 점점 종교적, 금욕적 생활에 집착하고, 이에 정비례하여 그를 둘러싼 학생들은 그에게 조롱과 야유, 짓궂은 장난을 더 할 뿐이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가 만든 덫에라도 걸린듯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다.

처음에 그는 자신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종교적 관용을 갖고 선의로 대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너무나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는 주위 사람들을 응징하고 싶은 감정적 충동과 이를 거부하는 정신적 욕구 사이에서 격심한 심리적 갈등과 자기 분열속에 빠진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는 순간적으로 폭행성을 띤다.

그의 폭행성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위기를 느끼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보상적 발작성이 있다. 그에게는 완벽한 종교적, 금욕적 생활을 하려는 정신적 갈망과 이를 거부하는 육체적 욕구가 너무나 강력히 相衝하며 共存한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갈망이 위기에 빠졌을 때 폭행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구가 강하게 자극되거나 좌절될 순간에도 폭행성을 띤다. 그가 자신의 금욕적 종교생활을 야유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학생들을 별안간 구타하거나 사랑의 행위를 암시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책, “로미오와 줄리엣”을 찢어 팽개치는 행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악에 대한 응징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미화된 자신이 내부로부터 무너짐을 지각하고 그 위기에 대한 신경질적 거부반응이라 할 수 있다.

Moira의 강간과 살해도 그의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갈망이 각각 자신의 생명력 유지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순간 선별적으로 나타난 광폭스런 보상적 행위다.

Joseph의 폭행이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위기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때 나타난 보상적 발작성의 폭행에 대한 인간적 이해는 가능하다. 그의 폭행은 자기 방어 욕구의 폭발이다. 하나의 생물학적 개체에 불과한 인간의 원초적 본성은 어떤 사회적으로 미화된 굴레들(종교적, 도덕적, 윤리적……)도 자신이라는 개체의 존재를 위기로 빠뜨릴 때 그를 거부하는 것 같다. Joseph의 폭행이 작품 *Moira*에서 특별한 문학적 충격을 주는 것도 그의 폭행성이 한 개체의 가장 순수한 과업인 자기 존재 유지를 위한 최후의 울부짖음과도 같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 Bibliographie

- Oeuvres Complètes de Julien Green, t. I, éd. Gallimard, 1972.
- Oeuvres Complètes de Julien Green, t. II, éd. Gallimard, 1973.
- Oeuvres Complètes de Julien Green, t. III, éd. Gallimard, 1973.
- Oeuvres Complètes de Julien Green, t. IV, éd. Gallimard, 1975.
- Oeuvres Complètes de Julien Green, t. v, éd. Gallimard, 1977.
- Julien Green ou l'obsession du mal, par Jean Sémoulé(1984).
- L'existence dans les romans de Julien Green, par Antoine Fongaro(1954).
- Julien Green par Pierre Brodin(1956).
- L'âme engagé par J.L. Prévost(1960).
- Julien Green par lui-même, par Robert de Saint Jean, éd. Seuil, 1967.

### Résumé

Au début de son œuvre *Moira*, Julien Green cite une phrase de Saint-François de Sale "La pureté ne se trouve qu'en Paradis et en Enfer." La violence de Joseph qui le conduit à sa propre destruction est due à la recherche passionnelle de la pureté, vérité absolue, qu'il s' imagine de trouver dans les austérités du protestantisme.

Il rêve d'un paradis terrestre où tout le monde s'entend dans le respect de Dieu de sa religion, suivant les leçons de l'Evangile. Mais son manque de sensibilité de la vie moderne et civile ne lui fait qu'inviter les étudiants à chercher le moyen de lui jouer de vilains tours. Il s'efforce, toujours fidèle à son protestantisme, de tolérer leurs insultes et leur actions provocantes. Pourtant il tombe dans un trouble insupportable, ne pouvant chasser hors de lui le désir, qui s'enflamme dans ses veines, de les punir. C'est au moment où il perd tout à fait la maîtrise de soi dans un trouble extrême que sa violence s'éclate incons-

ciencieusement d'une façon impulsive.

On dira que la violence de Joseph dérive dans une certaine mesure d'un délire de compensation qui veut instinctivement surmonter sa crise, soit morale soit physique, et sauver son être de sa propre désagrégation. En fait, son être meurt de soif de la pureté d'une vie protestante, autant que du désir pur et physique qui refuse toute la moralité religieuse et stoïque. Sa violence se manifeste donc non seulement au moment de la crise morale mais encore à celui de la crise physique. Ses violences brutales aux étudiants qui raillent sa religion et sa vie stoïque et le déchirement impulsif de *Roméo et Juliette* qu'il entend d'avoir une scène impudique peuvent être considérés comme un acte de refus inconscient de sa désagrégation intérieure plutôt qu'une punition consciente du mal. Le viol farouche et l'assassinat incompréhensible de Moïra par Joseph représentent encore le refus instinctif de la désagrégation de de son être; l'un se fait dans le délire de compensation corporelle d'un refoulé, l'autre dans le délire de compensation morale, dans l'illusion qu'il se fait pour rehabiler sa pureté, en détruisant l'origine du mal, corps de Moïra.

Les violences de Joseph ne peuvent se justifier aucunement dans la communauté humaine. Pourtant ses violences, que nous jugeons défensives plutôt qu'offensive, auxquelles il s'abandonne dans un délire et qui le conduisent à sa propre destruction, font qu'il nous inspire une certaine pitié. Peut-être la nature d'un être ne refuse-t-elle instinctivement toutes les règles (religieuses, morales, éthiques etc.) de la société qu'au moment où ils défavorisent son être. Si les violences de Joseph produisent, malgré leurs caractères criminels, les effets littéraires en nous inculquant un choc au cœur, c'est qu'elles apparaissent comme les derniers cris d'un homme qui s'accroche à la vie de son être, sa vérité absolue.